

제23차 집국 회의

일시 : 2003. 6. 20 장소 : 여랑집

☆ 일정공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 데이드림 3호 글 마감	9	10 교학협	11 일탈 편집	12	13 미군 장갑차 사건 1주기	14
15	16 기발고사 기간 데이드림 받음 배포 한판 회의	17 여학생처 면담	18 총여 입장글	19 뉴시스 기사 학생처장 면담 <i>총여 입장글</i>	20 여학생처장 면담 심복자씨 연락음 23차 집국회의	21 여성학회준계발표회
22 콘서트 회의	23 방학 대책위회의(11시) <i>중여 (여식)</i>	24 12시 여학생처 식사 8시 한판회의 <i>(문대영씨)</i>	25 10시 연세여성주의자운동회 몽 출국 오후 1시	26 기랄 교양 학교 <i>(연세)</i>	27 <i>학생처장</i> <i>(2시)</i> <i>사화</i>	28 <i>한판회의</i>

보고 및 논의 안건

① 3호 데이드림

- 배포 : 정문, 학관, 중도

② '언니에게 희망을' 새옴터 콘서트

- 백주년기념관 학생요금으로 확정(여학생처장 → 총무처장)
- 여학생처 30만원 지원

③ 법대 교수 채용

- 박미자 선생님을 통해서 애길 들음
- 연세대에서 교수채용을 바란다(18일)
- 뉴시스 기사(19일)
- 여성교수채용대책을마련하라(19일)
- 학생처장 면담(20일)
- 여학생처장 면담(20일)
- 이후 논의 : 법대 학과장 마련, 학교측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④ 여학생처장과 식사

- 24일 화요일 (12시)

⑤ 연세여성주의자 운동회

- 25일 수요일 10시 공대 옆 운동장

⑥ 여름방학계획

- 체미나
- 방중 지킴이 시간표

⑦ 여성연대 한판

- (첨부문서)

⑧ 총여학생회 1학기 평가

⑨ 성폭력대책위원회

사건명	
아카라카	
애플스	사건별인 교육
박순근	(6/4)학생요금안, 단체 요구 공문 발송 (6/5) 한겨레 박순근 입장글 (6/11) 조선일보 인터뷰 (6/23) 대책위
김기환 사건	(6/20) 심복자씨 연락 (6/23) 대책위

연세대학교에서 여성 교수의 채용을 바란다

각 단과대학 별로 여성 교수가 20%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보직 교수 중 여성 교수 비율을 정부시행 수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세대에서 지난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 중에서 여교수 비율 관련 학생 요구안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여대생 비율은 지난해 36.3%이며 해가 갈수록 여성의 대학 진학은 늘고 있습니다. 전국 박사학위 소지자 9만4632명 중 여성은 22.9%(1만4486명)를 차지하며, 대학 시간강사 4만7822명 중 여성의 비율이 37.4%(1만79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교수 비율은 2001년 14.1%(사립대 16.1%, 국공립대 8.8%)에 불과하고, 전국 대학 보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여대 보직교수를 뺀 경우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 보직 교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8.8%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립대 대학 여교수 비율 평균(16.1%)에 못미치는 국공립대의 낮은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보면 현재 세브란스 의료를 제외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여교수는 70명으로 전체 교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입니다. 이는 전국 사립대 여교수 평균 비율에도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중 생활과학대학과 음악대학과 같이 여성 교수가 많은 단대를 제외했을 경우 전체 여교수는 31명으로 5% 미만에 불과합니다.

학부에서 여학생은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에서 여학생 비율은 33.2%입니다. 하지만 법과대나 상경대 같은 단대의 경우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실정입니다. 법과대 여학생은 31.6%, 상경대는 29.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역할 모델이 되어줄 여교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2003년 연세대 교수 채용에 법과대에 여성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협상한 이행과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교수학생협의회에서 학교측은 올해 법대에서 여교수를 한 명 채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연대 법대 사상 최초로 여성 교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과대에서는 19명중 단 한 명의 여성 교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교수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왔습니다. '여교수를 쓰면 불편하다', '여교수는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 '대찬 여교수와는 함께 교수 생활을 할 수 없다.' 권리와 평등을 얘기하는 남성 교수님들 사이에서 여성 교수와 관련해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교수 사회에 있어서 교수로서 필요한 연구 업적이나 실력, 도덕성 등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교수 비율 향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연세대학교는 교육부보다 한 달여 앞서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 20%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립대보다 낮은 연세대학교의 여교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2003년 6월 18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 교수 채용 대책을 마련하라! - 법과대 교수 채용 과정을 바라보며

법과대는 연세대학교에서 상경대와 함께 여성 교수가 전혀 없는 단과대학입니다. 2002년까지 법과대학 여학생 비율이 31.6%에 이르고 있으며, 법학 전공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명의 법과대학 전임 교수들은 모두 남성 교수들입니다. 2003년 연세대학교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법과대학에서는 민법 친족상속법 분야로 교수를 한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대 교수 채용에 여성 교수만 두 명 지원하였습니다. 1950년 법학과가 만들어진 이후로 여성교수가 한 명도 없던 법과대에 여성 교수가 최초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생활과학대와 음악대를 제외할 경우 전체 교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수가 단 한 명도 없는 단과대와 학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심한 교수 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측에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가 2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안은 학교 본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5월 3일 학교측과 체결한 협약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과대 교수채용 심사에서 법과대측은 지원한 두 여성 교수 모두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과 교수 정원을 늘리고 신규 채용을 결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채용을 안 하기로 한 법과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지원자중 한 여성 교수가 개인 연구 업적과 외부 추천 결과, 학과 교수 인터뷰 등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교수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내부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채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교수 채용에 있어서 해당 전공 교수들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전공 분야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강의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같은 전공 교수들의 평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교수로서 자질과 능력이지, 성별이나 나이, 불합리한 편견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법대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법과대에서는 자체 심사 결과 지원한 여성 교수가 교수로서 전혀 손색없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15명의 법과대 교수들의 무기명 투표에서는 기존의 평가와는 상반되게 부결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교수로서 적절하고 능력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공개되지 않고 판단 근거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투표 과정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교수 채용은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학과와 전공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현직 교수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교수 채용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남성 교수가 대부분인 대학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법과대 채용 과정은 여성 교수에 대한 불합리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해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20%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사립대 학교지만 이미 지난 5월에 단과대학별로 여성교수를 2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과대 교수 채용 과정은 학교 본부나 교육부의 방침과는 별개로, 단과대나 학과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됨으로써, 이러한 여성교수채용목표제가 아무런 실효성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대학 사회의 남성중심성은 교수라는 지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교수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총여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연세대학교는 교수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여성 교수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교수 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올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법과대에서 정당한 판단과정을 거쳐서 여성 교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법과대측과 법대 교수님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연대 한판

이강능, 변

2003년 6월 16일 (화) 소나기

1. 위 참가 상황

오늘 참가한 단위는 이대여위, 관악여모, 고대법여학회, 연대 총여였구요

숭실대 총여는 다음 회의 때 오신대요.

많은 단위에 제안해요! - 경희대, 조선대, 성대총여, 중대 안캠, 숙대, 성신여대, 변날, 술래잡기, 페미먼스, 두 입술 등
& 한판 알리고 기획단 모집하는 웹자보와 배너 - 똑과 늘

중대총여, 성신여대

2. 한판 날짜

8월 1일 (금) ~ 8월 3일 (일) 확정

3. 한판 장소

- 1) 조선대에서 하자는 의견. 총여학생회장 조김미옥씨와 연락해야 함
- 2) 그 외

4. 주제와 담당자

- 1) 성폭력 상담소, 학칙 워크샵 - 여랑, 화, 반짝, 열

- 2) 반전 - 타리와 함께 했으면~

- 3) 노동: 구체적인 내용 아직 정해지지 않음

*반짝의 이주여성 노동?

*일년 간 여성노동 관련 사안 중심 짚어보기?

- 누에, 열, 고구마, 파문, 또랑(s)

- 4) 그들의 진보 - 늘, 열, 이방, 이소, 고구마, 노예

성적 소수자 - 반짝, 화, 파문, 또랑, 누에

- 6) 이주여성 성매매 - 토마, 고구마, 똑, 여랑(s)

새움터 수수와 함께 했으면~

여성주의 매체: 이강, 권혜리,

*자료수집팀: 똑, 자택

5. 한판 정기 회의

매주 화요일 늦은 8시, 다음 회의는 6월 24일 (화, 늦은 8시) 연대총여실

관악여모

6. 팀별 회의

- 1) 성 소수자 팀 회의 - 6월 25일 (수) 늦은 5시 이대 여위

- 2) 이주여성 성매매 팀 - 온라인 연락 주고받기

- 3) 나머지 팀별 회의 시간 장소 올려주세요

7. 기조

각자 꼭 생각해보고 다음 회의 시간에 정하기. 주제 아우를 수 있는 예쁜 기조

8. 이번 한판에 대한 바람들

- 1) 작년 한판처럼 뽀뽀하고 정신없는 일정보다 느슨한 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 큰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영화 보거나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 늘릴 수도

- 밤새워 세미나하고 마지막 날은 평가만 할 수도

- 2) 웃은 평범한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여성주의, 평등

9. 자료집, 선전물 미정